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지방간의 예방 대책



유 일 용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산** 란율이 피크에 도달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70% 수준에서 멈춰 있거나 피크산란율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산란의 변화가 있거나 육용종계에서 산란율이 산란개시부터 시작되어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사료에 대한 의문을 갖게된다. 그리고 수의사의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산란계 및 육용종계 사양 가중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곳에서는 지방간이란 증상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간이 농장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양가의 관리소홀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지식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심심찮게 지방간 증후군을 관찰하게 된다. 모든 질병은 그 질병을 뒷받침할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양가 여러분이 공

통적으로 즐겨하는 이야기는 사양관리를 예전과 똑같이 했는데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화는 여기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한가지 원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다각적·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사양관리, 사료, 환경, 질병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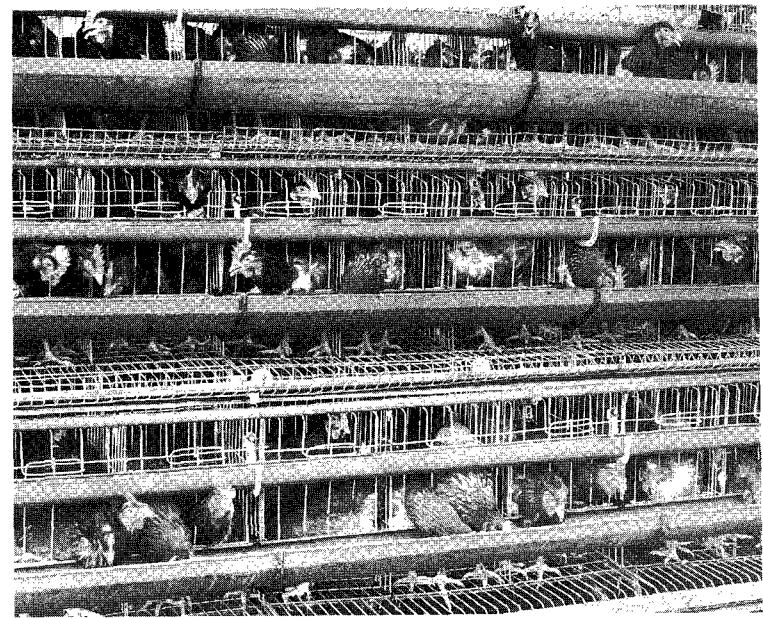
가을에 산란하게 되는 닭에 점등을 해주지 않아 성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성숙만된 채 산란도 시작하지 않은 닭에게 산란사료를 급여하며 급여량도 산란기에 해당하는 양을 주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다 산란5%가 되기까지 점등을 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여 점등을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에너지 섭취과잉으로 인한 지방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전문지식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경우는 계사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농장에 작업이 생기면 닭이 얼마나 산란하고 있는지 계수치 못하다가 결국은 지방계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양관리의 실의에 의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통 지방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식적으로는 지방간출혈증후군으로 명칭된다. 지방간이 돋버린 닭은 우선 들어보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 평상시 체중측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복부를 열어보면 지방이 많이 차있는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상태



에서도 복부를 만져보아 지방축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해부시 맨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복부의 샛노란 지방덩어리 그리고 위쪽에 퇴색된 황색의 간이 보인다.

지방간증후군으로 폐사된 닭에서는 부검시 복강내에 혈괴를 볼 수 있다.

출혈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방축적에 의한 세포의 파괴 등이 출혈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한 간을 만져보면 정상의 건강한 닭에서 느낄 수 있는 탄력성이 없고 만지면 깨지는 것

을 느낄 수 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섭취과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젖소의 경우는 에너지가 과잉되거나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지방간이 발생한다고 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반해 닭에서는 에너지 부족에 의한 지방간은 대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이 에너지섭취 과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에너지 섭취과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양 관리에 의한것과 그외에 필 요이상의 사료급여, 영양함

량이 너무 높은 사료의 급여, 영양균형이 맞지않은 사료의 급여 등이다.

특히, 육용종계는 사료섭취량이 많아 고정관념에 의한 몇g의 급여는 특히 영양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시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된다. 특히, 운동량이 제한되는 케이지 사료중인 육용종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방간에 의한 폐사 및 산란율 저하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영향을 받는것으로 보인다. 더위 스트레스가 가뜩이나 지방간에 의한 체력의 저하, 항병력의 저하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따르면 지방간에 걸린 닭이 혈액내 칼슘과 콜레스테롤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흐르면 불균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에너지의 섭취과잉외에도 사료원료에 따른 간출혈이 나타난다고도 보고되고 있으며 지방간의 병변과는 다르지만 아플라톡신에 의한 간출혈증후군도 일어나므로 사료에너지의 과도한 섭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다면 사료원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간이 일단 발생되면 정상으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경비도 많이든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약제는 메치오닌, 콜린, 비타민 E, B<sub>12</sub> 등이나 이러한 것을 첨가하며 사료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주어도 한두 달에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혹자는 강제환우를 하여 그뒤 피크산란율까지 도달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약제치료에 의한 회복효과가 기대치 이하인 상황에서 강제환우를 지방간의 치료 대책으로 선택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23]**

##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 ♠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 ♠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 ♠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
- ♠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전 일정 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여야 한다.